

“삶을 올곧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김승환 교육감, 3월 직원조회서 이성적 판단 중요성 강조

전북도교육청은 3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

3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직원조회는 3월 1일자 전입 직원 소개 및 교육감 인사 등 간단히 진행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독일의 천재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호세 리살을 소개하며 이성적인 판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괴테가 살던 시대는 격랑의 시대였다. 그렇지만 괴테는 ‘사람은 매일 적어도 짧은 음악 한곡을 듣고, 좋은 시 한편을 읽고, 뛰어난 그림 한편을 보고, 할 수 있다면 이성적인 말 몇 마디를 해야한다’는

말을 남겼다”면서 “‘격랑의 시대’에도 듣고 읽고 보고 말하는 것, 이성적인 인간에게 이성적으로 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필리핀의 호세 리살이 남긴 명언도 소개했다.

1896년 필리핀 독립을 2년 앞두고 죽음을 맞은 호세 리살은 ‘나는 겁나. 속박당하는 노예가 없는 곳, 사형집행이 없는 곳, 잔인한 압제자가 없는 곳으로, 신이 영원한 지배자인 곳으로, 울지 말아요. 죽음은 쉬는 것이 아니라 지 않으니까요’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집단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나와 다른



전북도교육청은 3월 직원조회를 개최했다.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전북도교육청 직원 여러분은 이 시대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괴테가 했던 말, 호세 리살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한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올곧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세월호 참사 추념식 학생추념위원 모집

도교육청, 도내 고등학생 11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념식에 참여할 학생추념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6일 전북교육청 광장(우천시 강당)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그날),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인 학생과 교사를 추모하는 추념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도내 고등학생 11명으로 기획·작가 3명, 촬영 6명, 영상

편집 2명이다. 아나운서와 행사운영·지원 분야는 추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6일까지 도교육청 정책공보관 담당자 이메일(inheart@jedu.kr)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생 추념위원들은 3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세월호 참사 추념식 행사 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동영상 제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 어린이집 휴원 연장

도내 1266개소 전체 어린이집 휴원 2주 추가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등원 아동에 대해서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토록 조치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감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 1,266개소에 대한 휴원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바 있다.

전북도는 이번 휴원 연장 시에도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교사를 배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교재교구, 의자 등을 매일 소독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을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기준을 완화·적용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도 관계자는 “금번 휴원 연장은 영유아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명신, 채용연계형 기술인력 육성 위한 협약 체결

취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적 발전 위해 상호 협력기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주)명신(대표 이태규)과 채용연계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적성별·직무별 채용계획 수립 △취업과 연계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특별반 개설 △인·적성 관련 교양교육과정, 직무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지원 △적성중심 기술인력 육성 교육모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생산에 나서는 (주)명신은 2020년 12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으로 전환한 후, 2021년 5만 대 위탁생산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자체모델을 개발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

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4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박호석 부사장 “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엄중한 시점에 새만금을 대표하는 군산을 전가차 전문생산업체의 근거지로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며 “전주비전대학교와 채용연계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지역경제발전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직 총장은 “우리 대학은 협약기업들과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 창의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기술의 융복합 및 시장 다각화에 대비해 실무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주)명신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충실히 준비하고, 또 학생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전주비전대학교는 (주)명신과 채용연계형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주)명신에서 박호석 부사장의 9명이, 전주비전대에서 홍순직 총장을 비롯해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김범구 사업관리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은 채용연계형 협약 외에도, 맞춤형 인재육성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특별반, 하림특별반 등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꽃사주기 릴레이 운동 동참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화훼농가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3일 화훼농가 살리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꽃사주기 릴레이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도내 대학 모두가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등을 취소함에 따라 전주시 화훼농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전주시화훼농가연합회로부터 잠미, 프리지아, 소국 등을 구매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를 통해 환경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우영 총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다”며, “지역사회에 사회적 의무를 둔 공공기관 모두가 협력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영 총장은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의 추천을 받아 꽃사주기 릴레이 운동에 동참했고, 다음 순번으로는 예원예술대학교 김홍대 총장을 추천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은 3일 꽃사주기 릴레이 운동에 동참했다.

전북대, 16일부터 2주간 비대면 수업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 후 2주간 강의실 수업 대신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강은 16일 그대로 하되, 27일까지 수업은 동영상 활용하거나 과제 제출 방식 등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일 예정이었던 개강을 2주 연기하되 16일부터 2주 동

안은 모든 과목(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대해 비대면 수업(재택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2주는 대면 수업, 그리고 1주를 보강하는 수업 방법을 채택했다.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실질적 대면 수업은 3월 30일에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전북대는 교육부의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라 원격수업이나 과제를 활용 수업 등 다양한 비대면 수업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